

+ 김영주 ·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미디어 산업, 창의산업으로서의 끊임없는 혁신을 기대한다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좀 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창의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과 투자가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의 파이를 키워가는 토양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니,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지난 몇 년을 끌어온 IPTV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은 IPTV가 제공하게 될 새로운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설까, IPTV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초기에 가입자를 얼마나 빠르게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지상파 콘텐츠의 유료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까, 디지털 케이블 TV와의 경쟁에서는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등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에 가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공 열어 붙은 경제한파에 주목할 뿐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서비스에 눈을 돌릴 여력이 아예 없어진 듯 보인다. 그러나, 2009년 한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좀 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창의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과 투자가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의 파이를 키워가는 토양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참으로 다양한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들, 향상된 서비스들이 우리 사회에 도입됐다. 지상파DMB와 위성DMB, Pre-IPTV와 IPTV, 인터넷을 매개로 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들..... 그런데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했음에도 우리나라 전체 미디어 시장의 파이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유료 미디어 시장 역시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이용자들이 직접 지불하는 ARPU는 매우 낮는데다가 광고시장의 규모가 획기적으로 커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디어나 플랫폼의 등장,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은 한정된 미디어 시장 내에서의 경쟁만 가열시킬 뿐, 결국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미디어 산업에 더욱 치명적이다. 그릴 수밖에 없는 것

이 미디어 산업은 창의산업이고, 창의산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의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산업이 창의산업인 이유를 들라면 백가지도 넘게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장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시스템 등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창의산업에 속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느낄 지겨움이나 이질감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한 내용은 새로운 포맷으로, 새로운 내용은 익숙한 포맷으로 재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창의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침체는 광고수익의 격감, 구조조정, 비용절감과 같은 경영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창의성(새로운 것에 도전과 혁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미디어의 오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교훈 중 중요한 하나는 혁신이 미디어를 진화시켜왔다는 것이다. 미디어 기술의 혁신, 생산과 유통 시스템의 혁신, 장르와 콘텐츠의 혁신, 서비스의 혁신, 소비패턴의 혁신..... 이러한 혁신의 성공은 완성된 기술, 기술적 장점, 자본의 우

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그 모든 혁신의 출발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성에 대한 신뢰, 창의과정에 대한 열정과 솔한 시행착오에서 비롯된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시장이 위축돼도 결코 미디어 산업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의지, 창의성에 대한 열정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현실이 주는 무게감이 무거워질수록 창의산업으로서 미디어 산업에 거는 기대,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산업 분야의 정책방향도 시장의 감시와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혁신을 유인하고 창의성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글을 쓰려고 시작하면서 기술엔 전혀 문외한인데다가 기계치인 내가 방송기술인들의 전문지널인 「방송과 기술」에 글을 써도 되는가, 잘 쓸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래서 원고를 청탁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했다.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능력에 부치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도 현실을 뛰어넘는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임을 실감하고 또 실감한다.